

# 프랑스 성경 번역 역사

- 1474년~1910년까지 -

김성규\*

## 1. 머리말

본 소고는 프랑스 성서 번역 역사를 개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역과 관련된 비평적 토론이나 특수한 상황은 아쉽지만 여기서 관심에 두지 않음을 미리 밝혀 둔다. 다만 국내에서 프랑스 성서 번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전체적인 윤곽만이라도 제시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데 뜻이 있다. 이 역사의 의미가 있는 일이며 결코 소홀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1474년부터 1910년까지 성서 번역사를 다루는 데 우리의 연구를 제한할 것이다. 프랑스어 성서 현대역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한 일이나 소논문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번역사를 다루는 작업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둘 모두를 다룰 수만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지만 차후로 미루겠다. 부수적으로 프랑스어 성서를 읽어야 할 인류학적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작금의 현황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프랑스어가 세계의 각종 회의에서 제 일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그 현상에 대하여 다소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어가 특별히 세계 55개국에서<sup>1)</sup> 사용되고 있고 4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국에서 불어 성서에 대한 소외된 관심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sup>2)</sup>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통틀어 일반적으로 ‘프랑코포니’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라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라는 단어 자체는 프랑스의 지리학자로서 민족주의적 공화주의적 신념이 강했던 오네짐 르끌뤼(Onesime Reclus, 1837-1916)가 1880년에 발간한 “France, Algérie et Colonies”(Hachette 출판사)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라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한양환, “불어권 지역연구와 불어교육의 활성화”, 『한국프랑스학 논집 한국프랑스 학회』 29 (2000), 67-68을 참조할 것. M, Tétu, *La Francophonie: histoire, problématique, perspectives* (Montréal: Guénerin Universitaire, 1992), 42-43.
- 2) 현대역 프랑어역 성서에 대한 자세한 일람표를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M. Auwers et al., *La Bible en français, Guide des traductions courantes*, Connaître la Bible n° 11:12 (Bruxelles: LumenVitae, 2002, nouvelle édition revue et augmentée).

### 1.1. 프랑스 언어의 형성

프랑스는 고대에 골(갈리아//Gaulle)이라고 불리던 지역으로, 켈트어족에 속하는 골족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로마의 갈리아 점령을 계기로 차차 로마화되어 라틴어를 쓰게 되었고, 마침내 5세기경 게르만 민족이 이 지역을 무력으로 침공하게 될 무렵, 골족의 언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행히도 갈리아를 침공한 게르만족은 피정복자의 문화와 종교(그리스도교) 및 언어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갈리아에서 프랑크족으로 대표되던 이들 게르만족의 언어는 이 당시에 골인이 쓰고 있던 후기 라틴어의 구어체에서 형성된 라틴 속어와 그 구조가 크게 달라 동화가 어렵게 되자, 이것이 당시의 언어(5~9세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9세기 이후 갈리아에서 쓰이던 언어(로망스어)는 벌써 그 전신인 라틴어와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 종교계, 학계에서는 여전히 라틴어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다수 일반 대중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813년에 열린 가톨릭 공의회가 신도들이 이미 이해하지 못하게 된 라틴어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중의 언어인 로망어로 설교해야 한다고 결정한 일이라든지, 857년에 국왕 샤를 1세가 왕명으로 공포한 법령집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망스어로 번역할 것을 주교들에게 명령한 사실 등이 이 무렵의 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프랑스어가 기록으로 남게 된 가장 오래된 문서가 842년의 “스트라스부르의 서약”이다. 이는 일종의 군사조약 문서로서 라인 강 동부를 통치하던 루드비히 왕과 프랑스의 샤를 왕이 상호 협조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후 1040년경에 쓰여진 듯한 “성 알렉시스전”(La Vie de Saint-Alexis)이 완본으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11세기 말엽에는 무훈시인 “롤랑의 노래”(La Chanson de Roland)가 만들어졌다. 12세기에는 시인 크레티앵 드 트루아가 나타나고, 13세기에는 갖가지 장르의 문예 작품이 “오일어”(langue d’oil)의 여러 방언으로 쓰여 중세에 있어서의 고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가장 오래된 문헌이 나타난 때로부터 13세기 말까지의 프랑스어를 “고대 프랑스어”(ancien français)라고 일컫는다. 지금의 프랑스어는 골(Gaule) 지방의 라틴어 중에서도 파리와 일-드-프랑스(Ile-de-France)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언어가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 1.2.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현황

프랑스어권 국가 연합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는 2002년 10월 현재 55개국이며 이 중 35개국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프랑스어 사용 인구를 산출할 때 프랑스어 인구의 범주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따라 숫자

가 다르게 나타난다. 프랑스어를 공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즉 협의의 프랑스어 인구) 1억 3천 5백만 명으로 산출되며, 반면에 프랑스어를 공용어, 법률어, 비즈니스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광의의 프랑스어 인구)에는 4억 5천만 명(전 세계 인구의 약 9%)에 달하게 된다.<sup>3)</sup>

협의의 프랑스어 인구(135백만 명)	유럽 지역	71.5백만 명 (프랑스 58백만 명, 벨기에 7백만 명, 스위스 3백만 명, 기타 지역 3.5백만 명[룩셈부르크, 모나코, 루마니아 등])
	미주 지역	13.5백만 명(캐나다8백만 명, 아이티 3.6백만 명,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프랑스 해외 영토(DOM) 0.96백만 명, 기타 지역 0.5백만 명 [루이지애나주, 구 영국령 서인도제도 도서 등])
	흑인아프리카, 인도양 지역	21.7백만 명
	북부아프리카 지역	25백만 명(알제리 12.5백만 명, 모로코 8백만 명, 튀니지 3.5백만 명, 모리타니아 0.5백만 명, 이집트 0.25백만 명)
	중동-아시아 지역	1.8 백만 명(레바논 1.1백만 명, 인도차이나 반도 0.7백만 명, 시리아 0.15백만 명 등.)
	남태평양 지역	0.45백만 명(누벨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군도 0.4백만 명 등)
광의의 프랑스어 인구 (총계: 455백만 명)	-협의의 프랑스어 인구: 135백만 명 -프랑스어를 공용어, 법률어, 비즈니스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전체 인구 수: 320백만 명	

### 1.3. 프랑스어역 성서의 이해의 필요성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어로 성서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은 우선 프랑스어 그 자체의 매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발음의 ‘선명함’과 ‘정확성’에 있다. 그리고 모음 음색이 다양하며, 프랑스어의 낱말은 대체로 짧고 악센트가 약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부드러운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어는 간단하고 짧은 단어와 요점이 축소된 표현을 선호한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단어나 표현을 간단하고 짧게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프랑스인들은 굳어진 표현 즉, 기성적 표현 방식이나 격언 같은 것을 즐겨 사용

3) B. Braun and F. Collignon, *La France en Fiches* (Paris: Brél, 1997), 27.

한다. 따라서 독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기만 한다면 의미론적으로 타 유럽 언어보다 정확하고 쉽게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 한편, 프랑스어는 논리적 질서를 확립하여 낱말 상호간의 관계를 선명하고 상세하게 표시할 뿐만 아니라 어휘가 갖고 있는 추상성으로 개념을 표현하는 데 유리한 언어다. 또한 프랑스어의 분석적 경향은 개념 상호간의 관계를 분해함으로써 프랑스어로 하여금 구조상의 정확성과 엄격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프랑스어 성서를 참고해야 할 인류학적 요인은 앞서 살펴 본 대로 지구상의 많은 인구가 실제로 불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현실성에서 비롯된다.

## 2. 프랑스어 성서의 태동기<sup>4)</sup>

프랑스어 성서는 어떤 독자적인 계획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독일어 성서의 영향이 유럽 전역에 증대되어 가는 가운데 프랑스어역 성서가 탄생을 보게 되었다.<sup>5)</sup> 1466년 요하네스 멘텔(Johannes Mentel)이 라틴어 불가타로부터 번역된 독어역 성서를 스트라스부르에서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그 후로 재판을 거듭하면서 번역의 신빙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결국 1475년 귄터 자이너(Gunter Zainer)에 의하여 원어로부터 수정되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믿음의 오직 성서의 토대 위에서만 유효하다는 확신과 성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접근될 수 있다는 보편적 생각으로부터 기인하였다. 결국 1522년 9월 21일 루터는 신약을 번역하였고, 1532년 구약까지 부분적으로 완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약의 최종 완역은 1527년 4월 13일 보름스에서 피터 쉐퍼(Peter Schöffer)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프랑스어 성서 번역이 무조건적으로 독어 성서의 수용으로부터 온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불어 성서 번역 역시 라틴어 불가타로부터<sup>6)</sup> 진정성 논쟁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갈뱅에 의한 종교개혁 시기까지 원어로부터 성서 번역의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7)</sup>

### 2.1. 학문의 역사(Historia scolastica)

4) Emmanuel Petavel, *La Bible en France, ou les traductions françaises des saint écritures: Etude historique et littéraire* (Paris: Fischbacher, 1864).

5) D. Barthelemy, "Aux origines de la Bible française imprimée", *Sources* 12 (1986), 193-203, 241-248.

6) S. Berger, *Histoire de la Vulgate pendant les premiers siècles du moyen âge* (Paris: Hachette, 1893), xv-xviii, 185-196.

7) E. Doumergue, *Jean Calvin*, vol. I (Lausanne: Georges Bridel, 1899), 105.

프랑스어로 된 첫 번째 성서 번역 작업은 8세기 중반에서야 완성되었다.<sup>8)</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성서는 “8세기 성서”로만 알려져 있을 뿐 세간에 회자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출판되지 못한 채로 사라져 버렸다. 그 후 1170-1175년 경, 파리 교회의 서기인 피에르 르 망쥬르(Pierre le Mangeur)가 세속의 역사를 정리하는 중에 거룩한 역사에 관심을 갖고 기록한 일종의 역사집을 출판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히스토리아 스폴라스띠까(*Historia scolastica*)라 이름 지었고, 총 888장과 21개의 소단원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물론 순수한 성서 그 자체 번역본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역사적 시각에서 서술한 성서 이야기이다. 그 속에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요세푸스가 남긴 다수의 구약성서 목록들을 포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죽음, 에스겔과 다니엘의 환상, 하박국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한 후에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의 귀환을 다루고 있으며, 이어서 토빗의 이름하에 느헤미야까지 유대 왕들과 페르시아 왕들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다. 신약시대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의 그 후계자들, 마카비 반란에서 시몬의 죽음과 헤롯 대왕의 마지막 섭정까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198장에 이르는 복음서 역사가 이어지고, 123장의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로마 순교 사건들까지 많은 사건들을 나열하였다.

## 2.2. 프랑스어 성서 완역<sup>9)</sup>

불어로 기록된 완전한 역사적 성서는 8세기 중반에야 그 빛을 보았다. 위에서 *Historia scolastica*를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한정된 번역은 또 다른 완전한 성서 번역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기야르 데 몰랭(Guiards des Moulins)이 손을 다시 보기 시작하여 “8세기 성서”가 지닌 결점들을 완전하게 보완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1485년경 장 드 렐리(Jean de Rély)가 이를 조금 더 보완하여 1495-1496년경 앙투안 베따르(Antoine Vétard) 인쇄소에서 처음으로 불어판 성서의 출판을 마무리하였다. 이 역사적 불어 성서 완역판은 성공적이었고 1544년까지 23판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인들이 성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보편화되어 갔다. 그러나 1520년에, 이 같은 흐름에 다시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주교 기욤 브리소네(Guillaume Briçonnet)가 “모”의 교구

8) S. Berger, *La Bible française au Moyen Age* (Paris: Hachette, 1884), 188-206.

9) S. Berger, *La Bible au seizième siècle, Étude sur les origines de la critique biblique* (Nancy: Berger-Levrault et Cie, 1879); W.-J. Van Eys, *Bibliographie des Bibles et des Nouveau Testaments en langue française des quinzième et seizième siècles* (Genève: Henri Kündig, 1900).

(Diocèse de Meaux)를 개혁하기 위하여 자끄 루페브르 데타플(Jacques Lefèvre d'Étapes)과<sup>10)</sup> 그의 친구, 제자들을 부르면서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촉발되었다. 주교의 목적은 이들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 국민들을 위한 성서에 충실한 불어역 번역판을 기획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는 1525년 10월 말경 스트라스부르의 볼프강 까삐퐁(Wolfgang Capiton)의 개인집에 집결하면서 그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그 구성원들은 꼬라시누스(Coracinus)로 불려진 65세의 자끄 루페브르 데타플(Jacques Lefèvre d'Étapes)과 톨히누스(Tolhinus)로 알려진 45세의 지라르 루셀(Girard Roussel)이었다. 이 둘은 까삐퐁의 집에서 다시 한 동료료를 만나는데 35살의 젊은 친구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었다. 이 세 친구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프랑스어로 된 성서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

### 2.2.1. 자끄 루페브르 데타플 (Jacques Lefèvre d'Étapes)

이들 모임의 수장격인 루페브르는 사실 문서편집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을 쌓고 있었다.<sup>11)</sup> 루페브르는 1435년에 태어나 수학자로서, 철학자로서 파리에서 교수로서 직업적 삶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수로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은 그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1507년 사임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브리소네(Briçonnet)가 제안한 수도원(l'abbaye de Saint-Germain-des-Prés) 생활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바로 여기서 루페브르는 성서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과 번역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 그러나 소로본 대학과 로마는 루페브르의 주석을 즉각 정죄하고 회람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개혁적인 눈을 열게 하였으며, 프랑스어 성서 번역은 바로 이 같은 개혁사상에서 출발하였다. 루페브르는 실제로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sup>12)</sup> 그러나 루페브르의 확신에 찬 번역의 표준은 어디까지나 라틴어 불가타본을 충실하게 따르는데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루페브르는 번역을 위한 첫 단계로 1510-1529년에 편집된 장 드 렐리(Jean de Rély)본을 참고하여 교정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을 다음과 같이 교정하였다.

10) Philip E. Hughes, *Lefèvre, Pioneer of Ecclesial Renewal in France* (Grand Rapids: Eedmans, 1984).

11) G. Bedouelle, *Lefèvre d'Étapes et l'intelligence des Écritures* (Genève: Droz, 1978), 50.

12) A. L. Herminjard, *Correspondance des Réformateurs dans les pays de langue française* (Paris: Fischbacher, 1866-1897), 90-92.

장 드 렐리(Jean de Rély)

*La Parole était au commencement et cette parole était envers Dieu / c'est la connaissance de Dieu la Père. et Dieu était la parole / c'est Dieu le Fils. Elle était au commencement du monde en la connaissance et en la volonté de Dieu la père.*

자끄 루페브르 데타블(Jacques Lefèvre d'Étapes)

*Au commencement était La Parole et la parole était avec Dieu : et la parole était Dieu.*

여기서 우리는 루페브르의 모든 번역을 검토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는 순서와 강조점의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본문의 변이, 이문 등등 본문비평에 따르는 원칙을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523년 루페브르는 신약 번역본을 완성하여 출판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서 과오와 오류, 줄임 등등을 교정하였다. 그러나 1525년 8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파리신학대학(*la Faculté de théologie de Paris*)은 기존의 성서를 개정할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자 루페브르의 독일적 개혁성향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신약 번역을 중지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다.<sup>13)</sup> 프랑스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고, 루페브르는 1525년 10월 말에 스트라스부르로 도피하였다. 여기서 그는 번역 작업을 계속하여 라틴어 불가타본에 조화되는 구약 번역을 진척시켰다. 그러나 때때로 불가타본이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난점을 발견할 때, 그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한 관계로 루터의 성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유배 중이던 프랑수와 1세가 돌아오자 루페브르를 다시 왕궁으로 불렀고 왕은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지만 의회의 결정을 막지는 못하였다. 출판을 고심하던 루페브르는 벨기에 앙베르의 마르틴 랑페르러(*Martin Lempereur d'Anvers*)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1528년 블르와(*Blois*)에서 이미 출판된 시편을 제외한 구약 성서가 루벵의 종교 심사관 즉, 루벵 대학의 박사들과 니콜라 꼬팽(*Nicolas Coppain*)의 심의로 출판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1530년에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샤를르 꺾-말린에 있던 황제 카를 5세(*l'empereur Charles Quint à Milines*)의 칙령으로 하나의 성서로써 마침내 출판이 되었다. 후에, 라틴어 불가타와는 독립적인 재판이 1534년에 나왔고, 이것은 1533년 11월 21일 브뤼셀 왕립 종교법에 의하여 인준됨으로써 최종 승인되었다. 그러나 파리 의회는 파리신학대학의 영향권 아래에 머물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고 모든 성서 번역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말린느 공국의 왕인 샤를르 꺾은 프랑스어와 플라망어로 성서 번역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후, 루페브르의 성서는 1509년부터

13) J. M. Bujanda, *Index de l'Université de Paris* (Paris: Pu de Sherbrooke, 1985), 58.

1541년 4판까지 루페브르의 사망 후 총 36번에 걸쳐 출판되는 놀라운 결과를 남겼다. 여기에는 물론 성서 전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적인 출판을 포함한 것인데, 성서로서 전체의 출판은 3회이며, 23회의 신약과 2회의 구약이다. 루페브르는 101세를 살았는데 당시로서는 놀랄 만한 장수 기록이다.<sup>14)</sup>

### 2.2.2. 루셀(Roussel)과 바타블(F. Vatable)

루페브르의 성서 번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인식한 사람은 루셀이다. 루셀은 루페브르의 프랑스어 성서 번역이 지닌 가장 큰 결함으로 번역을 위한 대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루페브르는 번역 대본으로 라틴어 불가타를 사용하였는데, 루셀은 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본으로부터 번역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루셀이 독일어 번역이 이미 성서 원어를 고려하여 번역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루페브르의 제자인 32살의 프랑수와 바타블(François Vatable)이다.<sup>15)</sup> 사실 바타블은 1530년 프랑수와 1세가 자신이 1547년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히브리어 교수로서 봉직하도록 명령을 하달 받았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한 성서 번역을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원문 성서로부터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의 성서를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지만 히브리어를 참고하여 주석하는 형태의 번역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바타블은 그 같은 일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sup>16)</sup>

프랑수와 1세가 유배로부터 왕궁으로 복귀한 후, 공작인 마르그리트 알랑송(Marguerite d'Alençon)은 루셀을 궁중 사제로 불러들였고, 프랑스어 성서 번역을 맡겼다. 공작은 루셀을 파렐에게 주선하였고, 둘은 라틴어 성구사전을 가지고 함께 작업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공작부인은 이미 번역된 프랑스어 성서 요약본을 잘 보관 중이었으며 그 덕택에 루셀은 용기를 가지고 인쇄를 준비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루셀은 파렐에게 바젤(Bâle)에서 프랑스어 인쇄소를 차리고 있던 미셸 방땡(Michel Bentin)의 손에 있는 창세기를 다시 가져올 것을 부탁하였다. 물론 창세기 전문을 복사하기 위해서였다. 1526년 12월 7일, 루셀은 공작 부인에게 성서 본문의 전역의 번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하여 서신을 보냈다. 루셀은 동시에 파리에 머물고 있는 세당(Sedan)의 왕자 로베르 드 라 마르

14) J. Bonnet, "Récits du seizième siècle",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1854), 18-20; A. L. Herminard, *Correspondance des réformateurs*, vol. III (Paris: Fischbacher), 400; D. Doumergue, *Jean Calvin*, I (Lausanne: Georges Bridel, 1899), 539.

15) H. Delarue, "Olivétan et Pierre de Vingle à Genève", *BHR* 8 (1980), 77이하.

16) D. Barthelemy, "Origine et Rayonnement de la Bible de Vatable", *Théorie et pratique de l'exégèse*, EPH 43 (1990), 385-401.



(Robert de la Marck)의 두 아들과 만나 번역을 위한 인쇄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그 일을 위하여 파렐을 추천하였다.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 가장 중요한 인쇄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루셀은 앞으로 진행될 그 모든 일들을 파렐에게 인계하였다.

### 2.2.3. 파렐과 올리베땅

프랑스어 성서 번역이 성서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비록 프랑스 의회의 반대와 파리 신학대학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렐에게 적어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사안이 있었다. 즉 프랑스어 성서로 번역할 수 있는 탁월한 번역가, 재정적 문제, 인쇄소였다. 1529년 3월 7일 파렐이 자신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설교가를 찾는 중에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친구인 보니파스 볼프하르트(Boniface Wolfhard)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인즉, 젊은 청년 루이 올리비에(Louis Olivier, 후에 삐에르 로베르 올리베땅으로 불리워짐)가 설교를 거절하였는데, 이유는 자신이 설교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대신에 성서 연구와 원어에 매우 열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 파렐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올리베땅(Olivétan)은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랍비 주석과 히브리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열성가였다. 얼마 후, 올리베땅은 1531년 12월부터 1532년 5월까지 뇌 샤펔에서 보수적 복음주의자인 앙리 본베스프르(Henri Bonvespre)<sup>17)</sup>의 집에 머물며 학교 교사로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올리베땅은 다시 뇌 샤펔을 떠나 제네바로 옮겨야 했는데 교사인 끌로드 비고띠에(Claude Bigottier)를<sup>18)</sup> 대신하기 위해서였다. 그 와중에도 스트라스부르 체류 후부터 올리베땅은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일에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꾸준하게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한 노력은 또한 루페브르의 프랑스어 성서 번역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파렐이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번역가는 숨어서 자라고 있었다.

한편으로 경제적 문제는 12세기부터 삐에몽(Piémont)의 골짜기에 살던 발도(Valdo)의 제자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프랑스어 성서 번역을 위하여 삶을 바친 순교자들이라 할 만하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을 박해하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프랑스어 성서를 번역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사실을 잘 인

17) A. Piaget, *Olivétan*, Documents inédits de la Réformation dans le pays de Neuchâtel, I (Neuchâtel: I, Neuchâtel, 1909), 521이하.

18) H. Delarue, "Olivétan et Pierre de Vingle à Genève", *BHR* 8 (1980), 77이하.

식하였고 1532년 여름 그들 중 몇몇 대표가 앙그로뉴(Angrogne)의 샹포랑(Chanforan)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랑송(Grançon)의 토론회의는 앙투안 소니에(Antoine Saunier)와 함께 파렐을 대표자로 보낼 것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 참석자들이 번역을 위한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였고 총 800에퀴를 수금하였다.

끝으로 인쇄에 관한 문제였다. 1513년 10월에 18살인 뵘에르 드 벵글러(Pierre de Vingle)<sup>19)</sup>는 리용에서 인쇄업을 하던 아버지 장 뵘까르(Jean Picard)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남은 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인쇄업을 인수하였던 끌로드 누리(Claude Nourry)와 함께 일을 계속하였다. 뵘에르는 후에 끌로드의 딸과 결혼을 하여 결국 1526년에 누리의 사위가 되었다. 이 인쇄업을 통하여 뵘에르는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와, 그리고 아마도 1929년 직전쯤 파렐과도<sup>20)</sup> 교분을 쌓았고, 심지어 루페브르의 허가되지 않은 신약성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벵글러는 1532-1533년 초에 돌연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제네바로 옮겨 일을 계속하였다. 1532년 2월, 제네바 세무 담당관은 벵글러가 허가 없이 인쇄업을 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시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1532년 10월 17일, 세무관은 태도를 바꾸어 베른 심의회에 벵글러의 합법적인 체류를 요청하고, 프랑스어 신약 성서를 출판하다 리용에서 쫓겨난 사실을 동정할 것을 탄원하였다. 그러는 동안 파렐과 소니에는 제네바로 돌아왔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올리베땅과 함께 추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sup>21)</sup> 파렐은 할 수 없이 올리베땅과 소니에를 ‘보’ 지역으로 보내어 머물게 하였고,<sup>22)</sup> 얼마 후, 소니에는 ‘보’의 사람들이 모은 500에퀴의 현금을 마르틴 고녕(Martin Gonin)이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현금은 곧 벵글러에게 전달되었고, 올리베땅의 프랑스어 성서에 기초한 교리집을 출판하는 데 사용되었다.<sup>23)</sup> 교리집은 계획대로 1533년 출판되었다. 그러는 동안 올리베땅은 장 쇼땅(Jean Chautemps)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 해 4월 말경 올리베땅은 팔레(Palays)의 교회에서 한 신부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가졌는데, 매우 비성서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신부에게 왜 엉터리 설교를 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그 원인이 성서로부터 설교하지 않는 데 있음을 지

19) G. Berthoud, “Pierre de Vingle l'imprimeur de Farel”, dans *Aspects de la propagande religieuse*, (Genève: E. Droz, 1957), 38-78.

20) 파렐의 첫 번째 출판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F. Gilmont, “Actes de colloque Guillaume Farel”, *Cahiers de la RThPh* 9, II (1983), 460-462.

21) H. Dalarue, “Olivétan et Pierre de Vingle à Genève”, 77이하.

22) S. Berger, “Les Bibles provençales et vaudoises”, *Romania* XV (1889), 3.

23) H. Dalarue, “Olivétan et Pierre de Vingle à Genève”, 117이하.

적하였다. 그러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이 같은 지적에 분개하였고, 장 쇼땅은 무리들에게서 올리베땅을 구해내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이 사건으로 심의회는 과거의 제재 조치를 다시 부활시켰고 올리베땅은 다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sup>24)</sup>

한편 벵글러는 베른 심의회에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서를 다시 인쇄하기 위하여 제네바의 심의회에 허가를 요청하였다. 제네바의 200인회(Deux-Cents)는 벵글러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끝에 허가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엄격한 조건 하에 요청을 수락하였는데, 프랑스어 성서는 반드시 앙베르(Anvers)의 성서 즉, 1530년 루페브르의 프랑스어 성서에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나 추가 혹은 어떤 변경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성서는 물론 인쇄소를 폐쇄한다는 엄격한 조항이었다.<sup>25)</sup> 그럼에도 베른 심의회는 벵글러의 요청을 다시 심의하면서 제네바의 결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리용의 영사에게 벵글러의 도덕성에 대한 믿을 만한 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6)</sup>

한편으로 1533년 8월 22일, 벵글러는 앙투안 마르꾸르(Antoine Marcourt)의 소책자를 출판하였던 뇌 샤펠에 머물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1년 후에 유명한 포스트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한 번 더 제네바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한 소동 가운데 예기치 않게 장 쇼땅의 집의 가게에서 수도참사원인 웨를리(Werly)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두 쌍 심의회가 성서의 출판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와 관련하여 파렐의 성서 출판 계획이 가장 먼저 소문으로 세간에 나돌았다. 그러나 제네바의 시민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파렐은 벵글러의 출판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뇌 샤펠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였다. 적어도 뇌 샤펠은 그 당시에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도시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533년 봄부터 제네바에 머물던 올리베땅이 성서를 출판하려는 벵글러와 빈번한 접촉이 있었으며 두 사람이 성서 출판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그 같은 시도는 쉽지 않았으며 올리베땅은 결국 개혁을 지원하는 ‘보’지방의 동역자들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그 후로 동역자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성서 출판 작업은 착착 진행되었고, 1535년

24) A. Froment, *Les Actes et gestes merveilleux de la cité de Genève*, G. Revilliod, ed. (Genève: Bourg du Four, 1854), 48-50.

25) H. Naef, *Les Origines de la Réforme à Genève*, II, (Genève: Journal de Genève, 1968), 396.

26) E. Droz, “Pierre de Vingle l'imprimeur de Farel”, *Aspects de la propagande Religieuse* (1957), 66.

2월 12일 ‘교회에 헌정’(Dédicace à l'Eglise)이라는 마지막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모든 출판 작업은 완성되었다. 그제야 벵글러는 ‘보’ 지방의 많은 지원자들의 후원아래 그토록 갈망하던 성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당시에 올리베땅의 성서는 성공적이었고 영국의 켄터베리 주교는 올리베땅 성서의 영국 출판을 허락받아 출판하기에 이른다.

### 3. 올리베땅 성서의 의의

성서를 출판하기 위한 올리베땅의 집념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올리베땅이 진짜로 성서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부터 프랑스어 성서를 집필하였는지 아니면 루페브르 데 타블의 프랑어역 판을 혹시라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존재하던 라틴어 성서를 그대로 채용한 것인지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올리베땅은 성서 번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누차 강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성서 번역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충실한 프랑스어역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류스(E. Reuss)에 의하면 올리베땅의 프랑스어 성서는 군데군데 일관성이 없는 번역이다.<sup>27)</sup> 그 이유는 올리베땅이 가령 신약성서의 경우에 루페브르와 1534년 3월 27일 출판된 삐에르 드 벵글러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스는<sup>28)</sup> 올리베땅이 때때로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에라스무스의 라틴어역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러나 올리베땅은 가끔 루페브르의 역을 손대지 않고 내버려두었는데, 에라스무스역과 헬라어가 수정을 요할 경우에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에라스무스역에서 부정확한 문장이 발견될 때도 수정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바로 올리베땅의 프랑어역 성서는 많은 문제를 남긴 채로 출판된 것이다. 그러나 올리베땅은 과거의 그 어느 누구보다 성서 번역을 위한 다양한 번역본들을 사용하였다고 자부하였다. 올리베땅은 적어도 5개의 헬라어역(LXX, Aquila, Symmaque, Theodotion, la Quinta)과 여러 개의 라틴어역(Vulgate), 세 개의 독일어역(Gunter Zainer, 취리히의 설교집들, 루터의 두 개의 번역본들), 두 개의 이탈리아어역(라틴어 불가타 성서에 토대를 둔 Nicolo Malherbi역, 히브리어에 기초를 둔 Antonio Brucioli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당대의 번역본을 도구

27) E. Reuss, “Fragments littéraires et critiques relatifs à l'histoire de la Bible française”,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chrétienne* (1979), 312.

28) *Ibid.*, 311-314.

로 삼아 프랑스어 성서를 출판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올리베땅은 그 한계도 노출하였다.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를 사용하여 비평적 방법으로 성서의 원문을 재생하는 노력보다는 위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상호 비교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다. 그러나 올리베땅 프랑스어 성서의 가장 큰 의의는 개혁의 흐름을 타고 진행하면서 비성서적 용어들을 대량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다. 가령 예를 들면 히브리어 ‘코헨’과 헬라어 ‘히에루스’와 관련하여 성직 계급을 강화하는 용어인 사제(prêtre)들을 제거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sacrificateur)으로 바꾸었다. 또한 자신의 교리집(Catécisme)에서 주(seigneur)는 영원자(Eternel)로 교체되었다.<sup>29)</sup>

#### 4. 올리베땅 후

파렐이 성서를 출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동안, ‘보’지역의 동역자들은 점차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모금하여 재원을 지원하였지만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출판 소식은 감감하였기 때문이다. 올리베땅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일자보다 일찍 출판을 서둘렀고 루페브르 성서에 대한 교정을 빨리 끝내야만 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1535년의 성서가 불완전하게 교정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로 1588년 완결본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1588년의 역본은 앞으로 100년 이상 손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정되었는데, 이유는 프랑스 개혁 교회의 강력한 요구에 이를 받아들인 제네바 교회의 목사들과 교수들의 엄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 4.1. 루벵 성서

올리베땅 이후의 기억할 만한 성서 번역은 루벵의 성서이다. 1546년 4월 8일 라틴어 불가타에 대한 공식입장이 천명된 트레نت 공의회가 선포된 후에 샤를르 꺽(Charles Quint) 황제는 같은 해 9월 루벵 대학의 공인 인쇄공 바르텔레미 드 그라브(Barthélemy de Grave)에게 3년의 기한을 두고 성서의 출판을 허가하였다. 대신에 루벵 대학의 교수들의 엄정한 검증을 받을 것이며 적어도 3개 국어 즉 라틴어, 프랑스어, 플라망어로 출판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1546년 5월 9일 루벵 신학대학 (Faculté de Théologie de Louvain)은 출판을 위하여 루페

29) O. Douen, “Coup d'oeil sur l'histoire du texte de la Bible d'Olivétan (1535-1560)”,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de Lausanne* (1889), 178-320.

브르의 프랑스어 역본을 포함한 금지된 성서 대본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샤를르 꺾 황제는 성서 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루벵 대학의 교수들로 하여금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출판을 종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1547년 라틴어 불가타가 출판되는 것을 필두로 1548년 플라망어로, 1550년 바르펠레미 드 그라브가 앙투안 마리 베르가뉴(Antoine Marie Bergagne)와 장드 왕(Jehan de Waen)과 함께 프랑스어로 출판을 완료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루페브르가 성서를 번역할 때에 참고한 니콜라 드 류즈(Nicolas de Leuze)에 의한 루벨 불가타 성서의 수정에 대한 관련성 문제였다. 이 모든 검증 과정은 뻬에르 드 꼬르뜨(Pierre de Corte)의 감시와 프랑수와 드 라르벤(François de Larben)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550년 성서 번역은 따르는 세대의 후광을 입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곧이어 출판된 1578년의 뿔랑땡(Plantin) 번역 성서가 후대의 거의 모든 성서의 대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뿔랑땡의 성서는 제네바의 성서를 거의 참고하지 않아 제네바를 즉각 따르지 않는 다른 번역본을 위해서는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1578년의 프랑스어 성서 번역본은 르네 브누아(René Benoist)의 개인적 이름을 딴 뿔랑땡 성서가 대중적이 되었고, 성서 번역을 위한 대본으로써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혁을 표방하며 적절한 번역을 고대하던 루벵학파들의 원칙에도 잘 조화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파리 신학대학이 새로운 성서 번역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동안, 뒤 뿔레시스 다르장트레(Du Plesis d'Argentré)<sup>30)</sup> 그레고리우스 13세(Grégoire XIII)가 르네 브누아(René Benoist)의 프랑스어 번역판을 완전히 금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르네 브누아의 프랑스어 번역본은 루벵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적절하지 못한 상당 부분이 제거되었고, 그 후 1582년부터 프랑스에서 재출판 되곤 하였다. 이것은 다소간 놀라운 것으로 성서의 새로운 출판에 매우 부정적이던 파리의 신학자들이 수정된 르네 브누아의 성서에 대하여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 바로 직전인 1581년 소르본의 두 교수가 루벵의 신학자들이 1578년 앙베르에서 르네 브누아의 프랑스어 성서 수정본을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반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지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82년, 파리의 동이가 리용의 장 뿔레오프(Jean Pillehotte) 출판사 이름으로 나온 성서본의 서문과 인정된 성서본의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1581년 8월 28일자에서, 파리 신학대학의 교수들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 왕의 뜻에 적절한 번역본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왕의 법령으로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30) C. Du Plesis d'Argentré, *Collectio judiciorum de novis erroribus*, II (Paris: Tulle, 1728), 534.

## 4.2. 올리베땅 성서의 교정과 마르땡

올리베땅 성서의 가치는 사후에 그 가치를 발휘하였다. 성서 번역을 위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올리베땅의 성서가 교정과 번역을 위한 기초로써 프랑스 개신교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사실상 올리베땅의 성서는 프랑스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출판 성서이자 번역 성서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곳곳에 정확하지 않은 번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1560년 깔뱅(Calvin)은 올리베땅의 성서를 처음으로 교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깔뱅은 그의 사촌인 올리베땅의 프랑스어 번역이 엄정하고 공평하다고 평하면서도 교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필요성은 떼오도르 드 베자(Théodore de Bèze)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져 1588년 두 번째 교정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교정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베자의 1558년 번역본은 1세기 가까이 재판을 거듭하며 프랑스의 리용(Lyon), 캉(Caen), 파리(Paris), 라로셴(La Rochelle), 세당(Sedan), 네덜란드의 니오르(Niort), 스위스의 바젤(Bâle) 등 프랑어권 지역에서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교정은 계속되었고, 17세기 말, 벨기에 왈롱의 총회는 다비드 마르틴(David Martin)에게 그동안 세월이 흘러 이해가 어려운 구 프랑스어 성서를 다시 완전하게 교정할 것을 부탁하였다. 마르틴은 히브리어에 정통하였고 신학 연구에 열정을 가진 끝에 1633년에 목사가 되었다. 낭뜨칙령에 대한 로마의 거부로 개혁 교회가 폐쇄되자,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고, 박해를 피하여 위트레흐트에서 목사로 일하면서 교수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였다. 결국은 프랑스로 돌아와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다. 이처럼 마르틴은 학자이면서 경건한 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균형 있는 능력 때문에 성서 번역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올리베땅 성서의 교정 작업은 누구보다도 가장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신약의 교정은 1696년, 구약을 포함한 전체 성서는 1707년에 완성되었다. 마르틴 성서의 특징은 훌륭한 각주와 뛰어난 인물들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여인과 혼인을 한 솔로몬의 경우로서, 마르틴은 각주에서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풍습은 가나안 여인과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영락없이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용납했다는 증거였다고 마르틴은 덧붙인다. 그러나 바젤(Bâle)의 뵘에르로끄(Pierre Roques) 목사와 비엔느(Bienne)의 사무엘 솔(Samuel Scholl) 목사에게 마르틴의 성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으며, 두 목사에 의하여 1736년과 1746년에 수정판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수정은 오스페르발트(Ostervald)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5. 오스페르발트(Ostervald)

오스페르발트(Ostervald)는 1663년에 뇌 샤펔에서 태어나, 16살에 고전학 연구를 마치고, 파리, 소뮈르(Saumur), 오를레앙(Orléans)에서 철학과 신학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뇌 샤펔에서 1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9년 뒤에 교수가 되었다. 신학 성향은 자유로웠고 갈뱅의 인간의 전적 부패교리를 믿지 않았다. 목회자로서 63년 동안 성직을 수행하다 1747년 4월에 죽었다. 80살이 돼서야 성서 번역에 손을 대기 시작한 오스페르발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숙하였으며 거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정 작업을 할 정도로 열성을 갖고 있었다. 오스페르발트의 첫 번째 성서 수정본은 1744년에 출판되었다. 그 내용을 열어 본 결과, 프랑스어 역본 그 자체의 수정보다는 신학적 논의와 설명 부분이 돋보였다.<sup>31)</sup> 그러므로 오스페르발트의 불어 번역본은 사실상 그 존재를 말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의 1724년의 제네바 성서에 대한 이런저런 논의의 수정만이 특출하였다.<sup>32)</sup>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성서 번역을 위한 좀 더 이상적인 시도가 있게 된 이유는 모두 원어에 가까운 번역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스페르발트의 대부분의 수정은 원어적 의미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이며 어떻게 하면 좀 더 당대인들이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표현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오스페르발트의 결정적 약점은 또 다른 수정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결과 제네바에서 1805년에 구약의 수정본, 1822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성서 전체에 대한 수정본이 나타났다. 가장 완성된 수정본은 1869년 샤를 프로사르(Charles Frossard) 목사의 신약 수정본으로 1872년 프랑스성서공회(la Société biblique de France)가 이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구약은 1881년 공회의 5명의 교정위원들에 의하여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889년 낭뜨 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검증을 더 거칠 필요성을 주장하여 1894년 신약 성서를 재출판하였고, 세당(Sedan)의 총회는 이를 다시 교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1903년 프랑스성서공회는 다시 신약 성서와 시편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17년의 지루한 시간을 뒤로 하고 1905년 출판을 마치게 되었다. 총회 성서로서 1905년 신약성서는 교회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이로써 보편적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프랑스어 성서가 만들어졌다.

31) M. Stapfer, “La traduction protestante française du Nouveau Testament”, *Revue chrétienne*, juin, avril, août (1900), 436.

32) 1724년의 성서는 서문에 성서 개개 책들의 항목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책의 장의 수와 절의 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요약한 대로 적어보면 구약은 총 23,209구절, 신약은 7,958구절로 되어 있어 성서 전체로는 31,167구절이다.



## 6. 프랑스어 성서

19세기와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프랑스어 성서는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올리베땅 이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토대를 둔 첫 프랑스어 개신교 성서는 프랑스 국가교회의 두 그룹에 의하여 출판된 성서이다. 1864년부터 1868년 2년에 걸쳐 7개의 개별 성서가 프랑스 목사들과 전문 사역자들에 의하여 번역되었다.<sup>33)</sup> 곧이어 루이 스공(Louis Segond)이 구약성서를 번역하였으나 제네바 목사들의 검증을 거쳐야 했다. 이유는 루이 스공의 성서가 원어에 대한 정확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명확하지 않은 많은 표현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번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이 있었는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읽지 않는 소신지서를 추가로 번역하였고, 당대의 가장 활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호소하였다는 사실이다. 많은 그리스도인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루이 스공 성서는 가톨릭 신부인 크랑뽕(Crampon)에게도 찬사를 받을 정도였지만 아쉽게도 구약은 오스페르발트의 부분적인 수정 정도를 넘지 못하였다. 1873년 전에는 소책자 형태로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한 스공 성서는 1873년에 가서야 구약 성서라는 이름으로 제네바의 쉘르빌리에(Cherbuliez) 출판사에서 두 권으로 약 500부가 출판되었고, 후에 1880년 파리성서공회에 의하여 약 35,000부가 다시 인쇄되었다. 곧이어 영국에서도 출판의 러시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성서 번역본으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sup>34)</sup> 이리하여 스공 성서는 총 38회의 편집과 출판을 거듭하면서 50만부가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이상 19세기 말까지 프랑스어로 출판된 성서를 모두 요약하면, 원어에 토대를 두고 24회에 걸쳐 번역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에는 4개의 성서(Lausanne, Second, Reuss, Darby<sup>35)</sup>)와 2개의 구약본(Perret-Gentil, Bible annotée), 6개의 신약 성서(Munier, Rillie, Arnaud, Oltramare, Bonnet, Stapfer), 12개의 번역본, 189개의 파편 형태의 성서(L.

33) Sociétés bibliques, *Les oeuvres du protestantisme français au dix-neuvième siècle* (Paris: Fischbacher, 1893).

34) 1880년 성서 완본 번역본으로서 첫 출판이 이루어진 이래로 1910년 수정본(édition révisée par la Société biblique britannique et étrangère), 1978년 새 스공판(Nouvelle Segond révisée [NSR] ou Bible à la Colombe), 2002년 완역 새 스공판(révision complète appelée Nouvelle Bible Segond)까지 꾸준히 번역되었다. 스공 성서는 현재까지 프랑스 개신교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서가 되었다. D. Fougeras, *Nommer Dieu en traduction biblique, Bibles en traduction, Cahier biblique n° 41* (Paris: Foi et Vie, 2002), 43.

35) 지금까지도 애용되고 있는 다르비 성서로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기초한 문학적 번역본이다. 영국 국교회 분리주의자로서 다르비 교회를 창설하였고, 성서번역에도 힘을 쏟아 1859년에 신약, 1885년에는 구약성서를 번역하였다. 그러나 다르비 성서는 역사적, 비평적 모든 설명을 빠뜨린 채 출판되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교정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시도되지 않았다. E. Denimal, *La Bible pour les nuls* (Paris: First, 2004), 45.

Bridel, Vivien, Coquerel, Bruston, Walther, le Savoureux, Félix Bovet, Montet, P. Passy, André, P. Krüger, Fréd. Godet)가 포함되어 있다. 국적별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12명은 스위스 출신이며, 2개의 완전한 성서(로잔, 스공), 2개의 완전한 구약 성서(Perret-Gentil, Bible annotée) 그리고 부분들(L. Bridel, Walther, Félix Bovet, Fréd. Godet)을 제작했다. 11명은 프랑스인들이고, 그들은 완전한 한 개의 성서(Reuss)와 2개의 신약 성서(Arnaud, Stapfer), 부분들(Vivien, Coquerel, Bruston, le Savoureux, Montet, Passy, André, P. Krüger)을 제작했다. 영국인은 단 한 명으로 다르비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19세기에 프랑스어 성서 번역에 공헌을 한 사람들은 바로 전체 반을 점유하는 스위스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성서		신약				구약			파편들			시편		출판된 권수				출판횟수		Tot.		
	번역	교정	재출판	번역	교정	재출판	번역	재출판	번역	교정	재출판	번역	재출판	성서	신약	구약	파편들	시편	번역	교정		재출판	
출판	개신교	8	24	269	8	21	282	2	3	15	1	47	6	309	301	311	5	63	315	39	46	910	995
	가톨릭	14	18	134	12	14	138	1		5	47	41	101	22	166	164	1	93	123	133	79	335	547
	이스라엘						2	3	4		4						5	8		6		7	13
	러시아			1			1			1				1	1			1		1		2	3
프랑스내 방언들	1			4	2				19		1			1	6		20		24	2	1	27	
프랑스 식민지어									6	2							8		6	2		8	
학자개별 출판	1			1					19		2			1	1		21		21			2	23
Tot.	24	42	404	25	37	421	5	6	69	50	95	107	331	470	483	11	214	438	230	129	1257	1616	

그러면 1474년 바르펠레미 뷔에(Barthélemy Buyer)의 신약성서 출판 이후로 1910년까지 총 435년 동안 프랑어로 출판된 모든 성서를 정리하면 위와 같다.<sup>36)</sup> 이상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주요 성서들을 총정리하면 우선 개신교는 올리베 땅(1535)의 성서 번역 전통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총 8개의 개신교 성서가 출판되었는데, 카스텔리옹(Castalion, 1555), 디오다티(Diodati, 1644), 르쎬느(Lecène, 1741), 로잔(Lausanne, 1839, 1861-1872), 다르비(Darby, 1859, 1885), 류스(Reuss, 1874-1880),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공(Segond, 1873-1880)이 있다. 또 8개의 개신교 신약 성서가 번역되었는데, 르클레르(Leclerc, 1703), 보소브르와 랑팡(Beausobre et Lenfant, 1718), 뫼니에

36) W. I. van Eys, *La Bibliographie des Bibles et des Nouveaux Testaments en langue française des quinzième et seizième siècles*, le catalogue de la Société biblique protestante de Paris (Genève: Henri Kündig, 1900); Félix Bove, *l'Histoire du psautier des Églises réformées* (Paris: Grassart, 1872).

(Munier, 1835), 아르노(Arnaud, 1858), 리에(Rilliet, 1858), 올트라마르(Oltramare, 1872), 보네(Bonnet, 1846-1855), 스타페르(Stapfer, 1889). 그리고 두 개의 개신교 구약 성서가 있는데, 빼레 장띠(Perret-Gentil, 1847-1861)와 주석 성서(la Bible annotée, 1878-1898) 등이 있다. 한편으로 프랑스어 가톨릭 성서 번역은 루페브르(1530)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후로 14개의 성서 번역과 12개의 신약 성서, 한 개의 구약 성서 번역이 이루어졌다.<sup>37)</sup> 그리고 나머지 시편과 같이 파편 형태로 번역된 많은 성서들이 있으나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프랑스어 번역은 원어로부터 총 359개(230개의 번역과 129개의 수정본)의 성서가 생겨났고, 1,257개의 재출판 작업이 이루어져 1,616개의 성서 번역본이 만들어졌다.

## 7. 결론

위에서 살펴본 대로 프랑스어 성경은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서서히 만들어졌다. 때때로 형언할 수 없는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번역의 역사는 앞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예민한 번역의 문제가 파생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몇몇은 번역과 관련하여 원어로부터 근원을 따지는 매우 표준적인 태도를 가졌다. 특히 루페브르와 올리베땅, 샤페이용과 브누아는 프랑스어 성서의 제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이다. 이 같은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상기할 만한 고무적인 현상이 있었다면 성서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개혁주의 정신을 배경으로 비평적 토론이 풍부하게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프랑스인들의 성서 사랑의 정신은 유럽의 성서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 보아서 프랑스는 가히 성서의 나라라는 별칭을 지녀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1474년부터 1910년까지 435년 동안 사소한 파편과 영국에서 알려지지 않는 출판물을 포함시키면 2,000개의 성서 번역은 족히 넘을 것이

37) 14개의 성서 번역은 루페브르(Lefèvre, 1530), 꼬르뱅(Corbin, 1643), 싸시(Sacy, 1696), 르그로(Legros, 1739-1753), 데조에르(Desoer, 1819), 저누드(Genoude, 1820-1824), 글레르(Glaire, 1861, 1889-1893), 부라쎬와 장비에(Bourassé et Janvier, 1865), 드리우(Drioux, 1872), 아르노(Arnaud, 1881), 트로송(Trochon, 1881), 피용(Fillion, 1888), 크랑뽕(Crampon, 1884, 1894-1904), 르드랭(Ledrain, 1899). 신약성서는 마롤르(Marolles, 1649), 아멜로뜨(Amelote, 1666), 고도(Godeau, 1668), 부우르(Bouhours, 1697-1703), 바르느빌르(Barneville, 1719), 시몽(R. Simon, 1702), 위레(Huré, 1702), 발라르(Valart, 1760), 메장귀(Mésenguy, 1729), 익명(마쎬), (Machais, 1842), 고프(Gaume, 1863), 바이야르쥬(Baillargeon, 1865), 그리고 구약은 칠십인역으로부터 번역을 한 기게(Giguet, 1872)가 있다.

다. 이는 어림잡아 2년마다 9개의 성서 번역이 나왔다는 결론이 생긴다. 이러한 통계는 프랑스어 성서가 프랑스 내부에서만 출판되었다는 가정을 넘어 전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출판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프랑스어 성서가 해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자리매김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루페브르 데타플, 오스페르발트, 루이 스킵, 프랑스.

Bible, Lefèvre d'Étaples, Ostervald, Louis Segond, France.

(투고 일자: 2010년 2월 22일, 2010년 4월 04일; 심사 일자: 2010년 3월 12일;  
게재 확정 일자: 2010년 4월 13일)

## &lt;참고문헌&gt;(References)

- 한양환, “불어권 지역연구와 불어교육의 활성화”, 「한국프랑스학 논집 한국프랑스 학회」 29 (2000), 67-68.
- Auwers, J.-M. et al., *La Bible en français, Guide des traductions courantes, Connaître la Bible* n° 11/12, Bruxelles: Lumen Vitae, 2002.
- Barthelemy, D., “Origine et Rayonnement de la Bible de Vatable, Théorie et pratique de l'exégèse”, *EPH* 43 (1990), 385-401.
- Barthelemy, D., “Aux origines de la Bible française imprimée”, *Sources* 12 (1986), 193-203, 241-248.
- Bedouelle, G., *Lefèvre d'Étaples et l'intelligence des Écritures*, Genève: Droz, 1978, 50.
- Berger, S., *Les Bibles provençales et vaudoises*, Romania XV (1889), 3.
- Berger, S., *La Bible au seizième siècle, Étude sur les origines de la critique biblique*, Nancy: Berger-Levrault et Cie, 1879.
- Berger, S., *La Bible française au Moyen Age*, Paris: Hachette, 1884.
- Berger, S., *Histoire de la Vulgate pendant les premiers siècles du moyen âge*, Paris: Hachette, 1893.
- Bonnet, J., *Récits du seizième siècle*,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1854), 18-20.
- Bove, Félix, *l'Histoire du psautier des Églises réformées*, Paris : Grassart, 1872.
- Braun, B. and Collignon, F., *La France en Fiches*, Paris: Brél, 1997.
- Bujanda, J. M., *Index de l'Université de Paris*, Paris: Pu de Sherbrooke, 1985.
- Delarue, H., Olivétan et Pierre de Vingle à Genève, *BHR* 8 (1980), 77.
- Denimal, E., *La Bible pour les nuls*, Paris: First, 2004.
- Douen, O., “Coup d'oeil sur l'histoire du texte de la Bible d'Oliveta (1535-1560)”,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de Lausanne* (1889), 178-320.
- Doumergue, E., *Jean Calvin*, I, Lausanne: Georges Bridel, 1899.
- Droz, E., *Pierre de Vingle l'imprimeur de Farel*, Aspects de la propagande Religieuse, Genève: Slakine, 1957.
- Froment, A., *Les Actes et gestes merveilleux de la cité de Genève*, G. Revilliod, ed., Genève: Bourg du Four, 1854.
- Fougeras, D., *Nommer Dieu en traduction biblique, Bibles en traduction*, Cahier biblique n° 41, Paris: Foi et Vie, 2002.

- Gilmont, J. F., *Actes de colloque Guillaume Farel*, Cahiers de la RThPh 9, II (1983), 460-462.
- Herminjard, L. A., *Correspondance des Réformateurs dans les pays de langue française*, Paris: Fischbacher, 1866-1897.
- Hughes, Philip E., Lefèvre, *Pioneer of ecclesial renewal in France*, Grand Rapids: Eedmans, 1984.
- Naef, H., *Les Origines de la Réforme à Genève*, Genève: Journal de Genève, 1968.
- Petavel, Emmanuel, *La Bible en France, ou les traductions françaises des saint écritures: Etude historique et littéraire*, Paris: Fischbacher, 1864.
- Piaget, A., Olivétan, *Documents inédits de la Réformation dans le pays de Neuchâtel*, Neuchâtel: I, Neuchâtel, 1909.
- Reuss, E., “Fragments littéraires et critiques relatifs à l'histoire de la Bible française”, *Revue de Théologie et de Philosophie chrétienne* (1979), 312.
- Sociétés bibliques, *Les oeuvres du protestantism français au dia-neuvié siècle*, Paris: Fischbacher, 1893.
- Stapfer, M., “La traduction protestante française du Nouveau Testament”, *Revue chrétienne*, juin, avril, août (1900), 436.
- Téetu, M., *La Francophonie : histoire, problématique, perspectives*, Montréal: Guéerin Universitaire, 1992.
- Van Eys, W. I., *La Bibliographie des Bibles et des Nouveaux Testaments en langue française des quinzième et seizième siècles*, in le catalogue de la Société biblique protestante de Paris, Genève: Henri Kündig, 1900.

<Abstract>

## History of the Bible in France: From 1474 to 1910

Prof. Sung-Gyu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n this study, we can trace more or less in detail the history of the French Bible from its origins until early twentieth century. **It is question** to briefly the history of production, not to study carefully the special issues on topics. It allows us to understand the extraordinary influence in development in France. The study shows that the French translation of the Bible has been slow in turbulent circumstances. In fact, there are two trends worth noting. **The first consist in what some** are translations in the interest of modernization. The latest view from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languages. For Protestantism, Olivetan is considered an important man who knows the essential principle of the translation related to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as Calvin. Since then, the question is put in the authentic translation. Thus, translators and publishers have inherited various discussions that recognize the birth of different types of Bible translation in the history of the Bible in France. If we take the 359 translations or reprints, we see that there were in France, or French, almost a first original edition of the sacred books each year (five in six years). We arrived at a figure of approximately 2000 editions and reprints of Scriptures from 1474 to 1910, that is to say four hundred and thirty five years, more than four French editions of the Sacred books each year (about nine every two years). The Bible story in France, said Samuel Berger, is a wonderful story. Blessed is he who can investigate a few pages! **These remarks** help us to recognize the birth of different types of Bible translation in the history of the Bible in France. Finally, we hope that **this study helps** Korean lecturer of the Bibl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French Bible.

<Abstract>

## L'histoire de la Bible en France

De 1474 á 1910

Prof. Sung-Gyu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ans cette étude, on peut retracer plus ou moins en détail l'histoire de la Bible française depuis ses origines jusqu'au début de vingtième siècle. Il s'agit de voir brièvement l'histoire de production, non d'étudier rigoureusement la particularité sur les sujets en questions. Elle nous permet de comprendre le rayonnement exceptionnel au cours de développement extraordinaire en France. L'étude nous montre que la traduction de la Bible française s'est effectuée lentement, en des circonstances tumultueuses. En fait, il y a deux tendances à noter. Les premiers consistent à ce que certains font les traductions dans l'intérêt à moderniser. Les derniers les considèrent à partir de langues originales. Pour la protestantisme, Olivétan est considérée comme un homme important qui sait la principe essentielle de la traduction liée à l'esprit de la Réformation comme Calvin. Depuis lors, la question se met dans la traduction authentique. Ainsi, les traducteurs et diffuseurs ont hérité les débats variés qui permettent de reconnaître la naissance des différents types de traduction de la Bible dans l'histoire de la Bible en France. Si on prend les 359 traductions ou révisions, on voit qu'il y a eu en France, ou en français, près d'une édition originale des Livres saints chaque année (cinq en six ans). Nous sommes donc arrivés à un chiffre approximatif de 2.000 éditions ou réimpressions des Écritures saintes de 1474 à 1910, c'est-à-dire en quatre cent trente-cinq ans, plus de quatre éditions françaises des Livres saints chaque année (environ neuf tous les deux ans). L'histoire de la Bible en France, a dit M. Samuel Berger, est une admirable histoire. Heureux celui qui peut en étudier quelques pages !

<Les mots-clefs>

Bible, Lefèvre d'Étaples, Ostervald, Louis Segond, France